

좁아도 너무 좁다 ‘투수잡는 S존’

투고타저 불구 볼넷 비율 ‘10.8%’ 역대급…KBO는 뭐하고 있나



2021시즌 KBO리그가 ‘역대급 볼넷 풍년’을 맞고 있다. 투고타저의 흐름 속에서도 투수들이 볼넷을 남발하고 있는 탓에 좁은 스트라이크존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이어지고 있다. KBO가 나서서 타이트한 스트라이크존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스포츠동아DB

올시즌 역대 최다 6074볼넷 예상
선발진과 볼펜 추격조 간극도 커
너무 좁은 S존, 투수들 성장 방해
심판 고과에 판정 반영 S존 더 위축
KBO가 현장과 치열하게 고민해야



10.8%, 열 명이 타석에 들어서면 한 명은 볼넷을 고른다.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는 그야말로 ‘볼넷의 시대’다. 40년 역사상 가장 높은 볼넷 비율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수들이 모처럼 힘을 내고 있는 ‘투고타저’ 경향 속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현상이라,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투수들의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결국 KBO의 역할에 대한 성토로 이어진다.

●투고타저, 하지만 볼넷은 역대급 페이스

13일까지 전체 523경기(72.8%)를 치른 가운데 볼넷은 4412개가 나왔다. 지금의 페이스로 시즌을 마칠 경우 6074볼넷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역대 최다는 물론 총 720경기 체제로 경기수가 많아진 2015년 이후로도 6000개를 넘긴 적은 없었다. 올 시즌 볼넷 비율은 10.8%, 역대 이 지표가 10% 이상이었던 적은 3차례

KBO리그 40년, 역대 최악 ‘볼넷의 시대’		최근 5년, 꾸준히 높아지는 볼넷 비율	
연도	볼넷 비율	연도	볼넷 비율
2021	10.8%	2021	10.8%
2009	10.2%	2020	9.4%
2001	10.4%	2019	8.5%
1992	10.0%	2018	8.1%
1990	9.9%	2017	7.9%

※ 2021년은 9월 13일 현재

최근 1년, 쏟아진 볼넷에 볼넷 기록			
	일자	기록	
SK(현 SSG)	2020년 9월 9일 인천 키움전	한 경기 최다 16볼넷	
키움	2021년 4월 29일 고척 두산전 1회	한 이닝 최다 타이 7볼넷 4사구 8개	
키움-롯데	2021년 9월 11일 시작	9이닝 기준 한 경기 최다 타이 4사구 23개	
LG 김윤식	2021년 9월 11일 잠실 두산전	6연속타자 4사구 최다기록	

(1992·2001·2009년)뿐이었다. 현재의 흐름이라면 종전 최다였던 2001년(10.4%)을 넘어설 기세다.

볼넷은 ‘만약의 근원’이다. 간혹 나오는 전략적 볼넷을 제외한다면, 투수 입장에서 타자와 제대로 붙어보지 못한 채 공짜로 1루를 내주는 기본을 느낀다. 많은 지도자들이 차라리 안타를 맞는 게 낫다며 볼넷을 줄이라고 세뇌해 가깝게 주문하는 이유다. KBO가 강조하는 스피드업 측면에서도 최소 공 4개를 연거푸 던져야 하는 볼넷은 최악일 수밖에 없다.

이종열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투수들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각 팀 1·2선발인 외국

인선수에 토종 1·2선발인 4선발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한다. 하지만 5선발 내지 볼펜 추격조가 등판했을 때 볼넷이 훌쩍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의 S존, 투수 성장 어려워”

투수 수준의 저하는 2020도요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아톰과도 맞닿아있다. 현장에선 스트라이크존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은 모양새다. 수도권 A팀 코치는 의명을 전제로 “심판별로 각자의 기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존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소연했다. 투수조련사로 정평이 난 양상문 SPOTV 해설위원은 “지금은 존이 확실히 좁다. 투수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스트라이크 판정은 심판의 고유 권한인데, 이 기준을 심판위원회 자체적으로 만들 순 없다. KBO가 현장과 머리를 맞대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KBO는 일률적인 스트라이크존을 기준으로, 경기별 판정을 심판 고과에 반영한다. 자연히 심판 입장에서도 보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KBO는 올림픽의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뒤 쇄신을 다짐했다. 기술위원회에 데이터분석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과정’을 강조했다. 엔트리 구성이 과징이고, 국제대회 성과가 결과라면 리그 수준의 향상은 ‘시작’이다. 그 시작을 향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손흥민·남태희·권창훈 이어 황의조도 부상에 쓰러졌다

(보르도)

랑스와 홈 경기 후반전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
벤투호 비슷한 라인업 기용…주축들 부담 가중
월드컵 최종예선 8경기 남아 컨디션 관리 중요



황의조

손흥민(29·토트넘)과 남태희(30·알두하일)가 축구국가대표팀 소집 도중 부상을 당한 데 이어 권창훈(27·수원 삼성)과 더불어 황의조(29·보르도)까지 부상으로 쓰러졌다.

황의조는 12일(한국시간) 벌어진 2021~2022시즌 프랑스 리그앙(1부) 5라운드 랑스와 홈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출전했지만, 후반 18분 허벅지에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후반 10분에도 공을 향해 쇄도하다 오른쪽 다리에 근육경련이 왔던 그는 결국 후반 19분 지미 브리앙과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다.

이미 다른 선수들도 부상으로 쓰러졌다. 2일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차전 이라크와 홈경기에서 출전한 남태희는 햄스트링 및 서혜부 부상을 당했다. 손흥민 역시 오른쪽 종아리 근육을 다쳐 7일 레바논과 최종예선 2차전 홈경기에서 결장했다. 레바논을 상대로 결승골을 뽑아낸 권창훈은 대표팀 소집 해제 후 받은 검사에서 오른쪽 종아리 근육 미세파열 판정을 받아 4주간 이탈한 상태다.

선수들의 소속팀에는 큰 타격이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원정경기에서 0-3으로 완패했다. 수원은 권창훈 없이 치른 광주FC와 K리그1(1부) 경기에서 2-2로 비기며 9경기 무승(3무6패)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황의조의 보르도도 랑스전 2-3 패배로 리그 최하위(승점 2)로 추락했다.

내년 3월까지 최종예선을 치러야 할 대표팀에도 악재다.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모두 소속팀과 대표팀 일정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은 매년 비슷한 라인업으로 A매치에 나서 일부 주축선수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격적으로 최종예선 일정에 돌입한 만큼 벤투 감독의 세심한 선수단 관리가 필요하다. 남은 최종예선 8경기에서 승리와 본선행을 거머쥐려면 그에 앞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13억 3330만원” KPGA 시즌 최다상금 신기록 세운 대세 박민지, 올해 얼마까지 벌까? ▶ 2면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통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